

퀵 배송·리모델링... 전통시장 부활의 날갯짓



무등시장 상인회 건물에 콜센터 마련 본격 택배 서비스 창조센터, 대인시장에 시범점포·송정매일시장 현대화

배송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내 입점한 58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구매자의 가정이나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즉시 무료 배달되기 때문에 무등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장애인, 맞벌이 부부, 임신부 등 거리와 시간 등의 문제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맞춤형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고, 소비자 주문시 1시간 내 배송이 완료돼 소비자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은 주문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무등시장의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만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송 서비스로 인해 전통시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서비스에 따른 만족도도 높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개별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 점포를 운영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전통시장도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장 전체 리모델링과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동구 대인시장에 시범 점포 2곳을 오픈했다.

대인시장 내 한과를 판매하는 '막둥이 한과'와 약초를 유통하는 '하루에 약초'를 해당 상점만의 감점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한 점이 이들 시범 점포의 특징이다.

창조센터는 전통시장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두 점포를 대상으로 현대카드와 함께 4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포장 및 진열 방법 개선 등 외부적 변화는 물론 신선 메뉴 개발,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등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창조센터는 광산구 전통시장인 송정역 전매일시장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확정하

고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의 외관은 최대 번영기였던 70~80년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현대적 고객 편의시설을 구축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점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조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현대화를 지양하고 시장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되살려 시장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상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범점포가 경쟁력을 갖추고 송정역전매일시장도 광주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갤러리가 된 백화점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백화점 1층에 전시된 정찬부 작가의 'In the garden'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부터 '한 평 갤러리'를 열어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제반 비용 및 공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통시장들이 경영 현대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의 전통시장도 마트에서도 하기 힘든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는가하면 창조경제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 점포를 오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지역 전통시장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이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2015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무등시장상인회는 퀵 배송 서비스에 필요한 콜센터 인력 1명과 배송 인력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건비(국비 90%, 자부담 10% 매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 무등시장 상인회 건물 내에 콜센터를 마련해 본격적인 배송 서비스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경영타격 현실화

중흥건설 수사 여파로 공사물량 줄어 중소기업 동반 부진

광주·전남 지역 건설공사 물량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건설업체의 경영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수사를 받은 중흥건설의 공사현장마저 줄어들어 중소기업업체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

2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항토기업인 중흥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 3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면서 3년 연속 전국 주택 자체공급량 3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들 현장에 매일 투입되는 평균 근로자 수만 8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를 합치면 각각 1000여 곳,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공급물량계획 가운데 상반기 공급 물량은 2000여 가구에 그치면

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흥 건설의 사업 계획에 맞춰 협력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과 장비, 인력 공급 계획을 마련했지만 중흥건설의 사업이 부진하자 동반 부진에 시달리는 것이다. 여기에 중흥건설이 올해 마무리 짓는 공사현장만 7곳에 달해 신규 현장도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창조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매년 공사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수 기업유치 추진 못지 않은 지역 항토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8.81 (-7.15) 금리 (국고채 3년) 1.70%
- ▼ 코스닥 751.04 (-25.22) 환율 (USD) 1167.00원 (-0.90)

과도한 금호산업 매각가 우려 높다

경제계 "1조원대 지나쳐...공정가치 산출 왜 했나"

금호산업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27일 금호산업 매각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채권단이 제시한 1조원대 매각가격과 관련, 기업의 '공정가치'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원금에만 눈이 멀어' 금호산업의 가치를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출한 주당 3만1000원의 공정가치를 무시하고, 지난 23일 두 배에 가까운 주당 5만9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작정한 가격이 있으면서 왜 공정가치를 산출했는지 의문"이라며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의 두 배인 5만9000원을 불렀다는 것은 애초에 공정가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 내부에서도 불멘소

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은 채권단 내에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채권은행들은 미래에셋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시장 예상보다 높아진 금액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높은 매각가를 주도한 미래에셋이 재무적 근거로 내놓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미래에셋은 매각가 제시에 앞서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손해를 보는 가격에 팔면 운용사로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산업 지분 50%의 가치가 왜 1조원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금호산업 매각 협상에서 미래에셋의 주장대로 진행되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은 6개월간 금호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할 후보는 드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光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착수

500억원 투입...고객·재무·회계관리 쇄신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정계, 정보계, CRM(고객관계관리), 재무·관리회계 등 은행의 중요 핵심업무에 새로운 IT기술을 반영해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17개월 후인 오는 2016년 11월 시스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광주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 모기업인 JB금융그룹 내 전북은행의 시스템을 활용,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사업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행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700억원 정도를 투입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은행은 200억원 가량을 절감한 것이다.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서울에 있던 전산센터를 본점으로 이전했으며, 이미 약 150명 정도의 IT인력이 서울에서 내려와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앞으로 최고 300여명의 전문인력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주에 등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임직원들도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주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명호 광주은행 IT본부장은 "광주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개발 및 신서비스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영업 분석환경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진일보한 IT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광주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 화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